

흔들리는 韓 수출...주력시장·첨단산업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열려 정부, '지역별 전략·수출 지원 방안' 발표 아세안 시장 다각화...中교역·투자 다변화

지난달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력 시장에 대한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첨단산업 업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투자 확대와 수출 동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지원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세안·미국·중국 등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중간재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한다. 소비재·서비스·인

프라 등 수출 품목도 확대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對)중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의약품)·엔젤(패션·의류)·싱글(생활용품)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돕는다.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 분야인 방산·원전·인프라와 관련이 큰 3대 전략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히 이행해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탈(脫)석유·제조업 육

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후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단 등 민관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력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수출지원협의회'에 참여해 정

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수출 실적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공급,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제도 확대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지원 기관별 20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활력도 높인다.

또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도 발표했다.

최근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번엔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사항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이 발표됐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양국 정부, 기업 간 디지털, 핵심 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향후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과 협력 여건에 맞는 경제 협력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등과의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 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설빙, '생딸기크림설빙' 등 시즌 한정 생딸기 시리즈 출시



딸기와 달콤·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크림블 접목한 메뉴 '주스' 등과도 곁들이기 좋다.

더불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등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설빙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네모 조각케이크'도 선보인다. 인절미, 흑임자, 딸기, 망고 등 4가지 맛으로 '인절미설빙'과 '흑임자찰떡설빙' 등 기존 빙수 메뉴를 연상케 한다. 촉촉하고 폭신했던 쉬폰 시트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설빙 브랜드 관계자는 "겨울마다 설빙 생딸기 시리즈를 기다려주시는 고객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 연구 끝에 딸기크림설빙과 생딸기히니브레드, 네모 조각케이크 등 새로운 디저트를 출시했다"며 "풍성한 설빙표 딸기 디저트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콤한 시간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기업 67% 법인세 인하등 세제 개편안 찬성

조세재정브리프, 법인세 개선 방안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세연은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조절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은 결과 기업체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기업체 규모로는 중소기업(51.4%), 중견기업(71.8%), 대기업(83.3%)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전문가와 기업체를 합쳐 67.6%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33.0% 순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릴지도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로 나타났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의향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며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에서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고용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의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하락시 고용 3.5% 증가”

투자·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법인세수 3.2% 상승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해 국가의 법인세 수익이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법인세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소로 기업 성장이 촉진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 수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법인세 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7%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확대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선욱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요거트 '마이픽' 2종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딸기맛 요거트에 국산 원유를 사용한 상큼하고 달달한 마이픽 요거트 2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제품 '마이픽 꺾어 먹는 요거트'는 딸기로 맛을 낸 요거트를 강조해 차별화한 제품 콘셉트다. 부드럽고 진한 초코링과 조화를 이룬 120g 용량의 플립형 요거트다.

'마이픽 드링킹 요거트'는 딸기 맛의 은은한 단맛에 코코넛 젤리가 자잘하게 씹히는 식감을

더한 온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720ml 대용량 드링킹 요거트다. 패키지는 딸기 요거트를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핑크 컬러의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현우 발효유브랜드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마이픽 2종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겸비했다"며 "국산 원유로 만든 요거트의 진한 풍미는 물론 소비자 취향에 따라 떠먹거나 혹은 마시거나 선택하



는 즐거움이 더해져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쿠팡, 겨울맞이 '스포츠 방한용품' 세일

와우회원 행사 기간, 즉시할인

쿠팡이 야외 운동족을 위한 '스포츠 방한용품 세일'을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겨울철 스포츠 의류와 야외 활동 용품을 모아 준비했다. 와우회원이라면 행사 기간에 즉시할인 혜택까지 받아 스포츠 방한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페이지에선 인기 방한용품을 카테고리별로 묶어 고객에게 추천하며 방한모자, 귀마개와 같은 액세서리부터 등산신발까지 다양한

상품을 엄선해 준비했다.

테마에 따른 추천 카테고리도 마련했다. 계절에 맞춰 '추위로 포기할 수 없는 캠핑용품'과 '겨울 필수 방한용품'을 추천한다.

'추위로 포기할 수 없는 캠핑' 페이지에서는 캠핑족 고객이 자주 찾는 캠핑난로, 장작, 침낭, 고체연료 등 겨울철 캠핑 필수품을 할인한다. '겨울 필수 방한용품' 페이지에서는 아이젠과 방한귀마개, 방한장갑, 스마트폰터치장갑 등 겨울철 등산에 필요한 레저용품을 추천한다.

오유나기자